

# 직장-가정갈등과 스트레스가 남편의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참여 남편을 중심으로

## Impact of Work-Family Conflict and Stress on Husband-to-Wife Violence

- Focused on Male Violence Offenders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김 재 엽\*\*

교 수 최 수 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 원 정 윤 경\*\*\*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

Professor : Kim, Jae-Yop

Professor : Choi, Soo-Chan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

Researcher : Chung, Yun-Kyung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fluences of work-family conflict on husband-to-wife battering and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wife battering. Subjects were 293 male violence offenders sampled from 65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nationally. Both direction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work-to-family interference (WIF) and family-to-work interference (FIW), were proven to be significantly influential on wife battering and stress. Work-to-family interference did not have direct influence on wife battering but indicate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of stress. On the other hand, family-to-work interference impli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tress, with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n wife batter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 discussion was extended to include the implication of an intervention that would decrease husband-to-wife battering.

---

▲주요어(Key Words) : 남편의 아내구타(husband-to-wife battering), 직장-가정갈등(work-family conflict),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ork-to-family interference),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amily-to work-interference), 스트레스(stress)

---

\*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용역을 받아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김재엽 (E-mail : jaeyop@yonsei.ac.kr)

\*\*\* 교신저자 : 정윤경 (E-mail : yunk313@hanmail.net)

## I. 서 론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내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 이후 가정폭력 발생율은 김광일(1990)의 연구에서 30.9%, 김재엽(1999)의 31.4%, 한국여성개발원(1999)의 조사에서 35.6%, 여성가족부(2004)의 15.7% 등(여성가족부, 2005에서 재인용)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아내폭력 발생율은 평균 약 30%로 남편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동안 아내 구타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행위자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 내적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아내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 남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부간 갈등이나 부부권력구조, 부부규범, 부부의사소통방식과 같은 가족 요인들이 아내구타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재엽, 2007; 김재엽·최수찬, 2005; 김지영·최상진, 2004; Gerber, 1991; Umberson et al., 2002). 하지만 폭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남성 스트레스의 유발원인에 대한 연구와 아내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족 외적인 요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서 가해 남성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및 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남성의 사회생활, 특히 직장생활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아내폭력을 야기하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생활은 개인에게 경제적 부의 획득과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우리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소득활동과 직장생활이 최우선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전통적 성역할 개념의 변화로 남성들 역시 가정에서 경제적 부양 외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직장과 가정의 두 환경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면서(최수찬·백지애, 2006; Allen et al., 2000; Hobfoll, 1989) 직장-가정갈등이 직장인의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사이의 갈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직무문제를 다루어왔고, 직장-가정갈등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소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직장-가정갈등이 부부갈등, 부부만족도 저하, 별거, 이혼 등 가족관계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김홍규·가영희, 2005; Presser, 2000; Strazdin et al., 2006). 직장-가정갈등과 아내폭력과의 관계를 직접적

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직장-가정갈등 연구나 아내폭력의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된 직장인들의 직장-가정갈등과 스트레스의 관계, 남편의 스트레스와 아내폭력의 관계, 부부갈등과 아내폭력과의 관계 등을 통해 이들의 연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직장-가정갈등은 개인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높아진 스트레스는 아내폭력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한 사회적 요인으로서 직장-가정갈등의 영향과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직장-가정갈등이란 직장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와 가정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의 두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양방향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은 두 방향을 분리하여 연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직장-가정갈등의 두 방향에 따라 각각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두 방향을 분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편을 대상으로 직장의 가정생활방해 및 가정의 직장생활방해와 아내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자 치료와 개입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아내폭력

#### 1) 개념

폭력이란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여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것과 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 & Gelles, 1990). 이는 곧 공격행동이 상대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의도하는 것일 때 이를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폭력이라는 용어가 아내학대에 해당하는 용어로 대변된다는 주장(Gelles &

Cornell, 1983)도 있으나, 부부폭력은 '매맞는 아내'라는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Schechter, 1982). 또한 최근 매맞는 남편의 사례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가정폭력 형태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아내폭력이란 용어를 별도로 쓰이고 있다(권복순, 1999).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을 결혼이나 동거관계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남성이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스트레스와 아내폭력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사회체계 내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요구하는 것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불일치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회체계가 반응할 때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요구를 적절하게 최소화하거나 부정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Farrington, 1986). Farrington (1980)은 일반 스트레스 이론의 다차원적인 스트레스 개념을 가족에 적용하여서 스트레스가 가족구성원과 가족단위 나아가 가족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였을 때 대처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여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과의 관계 연구들을 살펴보면 Straus (1980)는 전미가정폭력 조사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과 부부폭력 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부부일 수록 부부폭력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경제적이고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배우자 스트레스가 아내폭력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1999)이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내폭력이 약 3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의 원인이 됨을 증명하였다. Cano와 Vivian(2001)은 생활스트레스와 아내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부부만족도, 음주, 우울 등을 매개로하여 아내폭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지영과 최상진(2004)의 연구에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폭행 원인을 통합적 모델로 분석한 결과 남편의 성격 특성과 함께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내폭행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2005)가 전국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가정폭력 요인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폭력을 2배 이상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mberson 등(2002)은 아내폭력 남성들과 일반 남성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 폭력남성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일반 남성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우울, 고독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심리적 어려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징조없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폭력남성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포함한 이슈에 대해 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 2. 직장-가정갈등(WFC: Work-Family Conflict)

### 1) 개념

직장-가정갈등은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영역이 요구하는 역할과 다른 영역이 요구하는 역할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울 때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을 의미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Kahn 등(1964)에 의하면 역할이란 특정한 지위에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의해 기대되는 결과이며, 역할이론에서는 개인이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에 관계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atz & Kahn, 1978).

Greenhaus 와 Beutell(1985)은 직장-가정갈등을 정의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시간갈등, 긴장갈등, 역할갈등을 제시하였다. 시간갈등은 직업적 역할과 가족 역할에 참여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시간적 압력을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긴장갈등은 하나의 역할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 다른 역할의 질을 저하시킬 때 발생한다. 이러한 긴장은 다른 역할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역할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되며 직장이나 가족의 특성 모두가 긴장을 유발하여 직장-가정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행위갈등은 하나의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효과적이 못할 때 발생한다. 직장과 가정 내 역할의 특별한 행동 패턴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하는데 만일 다른 역할이 기대하는 행동에 적응할 수 없다면 역할 간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가정갈등에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경우(WIF)와 가정에서의 역할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경우(FIW)의 두 방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성을 개념화하여 측정된 초기 연구들(Gutek et al., 1991; Frone et al., 1992)은 직장의 특성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정의 특성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Kossek 과 Ozeki(1998)는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방향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갈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방향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근래의 연구들은 방향성과 함께 직장과 가정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

## 2) 직장-가정갈등의 영향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부담감은 직장-가정갈등을 야기하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은 물론 가족 관계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측면에서 직장-가정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Allen 등(2000)이 1977년에서 1998년까지의 직장-가정갈등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67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직장-가정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직장 관련 스트레스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ndey와 Cropanzano(1999)는 직장-가정갈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자원보존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자원보존이론(Hobfoll, 1989)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만일 자원이 부족하거나 손실이 예상될 때는 위협적인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직장이나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Kellowa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이 방향에 따라 스트레스의 발생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직장들이 가정생활과 일을 분리시키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장과 가정의 갈등이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직장-가정갈등이 부부생활 만족도 및 결혼생활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규·가영희, 2005; Allen et al., 2000; Grant-Vallone & Donaldson, 2001). Grant-Vallone과 Donaldson(2001)은 연구에서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직장-가정갈등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신체문제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직장-가정갈등이 심각할 경우에는 삶의 질 전체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김홍규와 가영희(2005)의 연구에서 직무의 과부하가 가정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반면 직장의 지원과 관여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과의 갈등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만족도가 직장-가정갈등의 예측변인이 된다는 일부 연구들(Kinnunen et al., 2004) 있어, 직장일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부부갈등이 직장에 더 몰두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부부갈등을 상승시키는지에 대해서 상호효과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직장생활의 불규칙적인 스케줄이 가족 기능을 약

화시키고(Strazdin et al., 2006) 별거와 이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Presser, 2000) 직장-가정갈등은 부부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장과 가정의 역할 간 몰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연구(Greenhaus et al., 2003)에서는 가족보다 직장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심리적인 몰입을 할수록 직장과 가정 간 갈등이 커지며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이 개인의 삶의 질에 보다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갈등의 상호작용은 역할갈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이이론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다른 곳으로의 전이는 두 공간에서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고 가정하고 있다(Staines, 1980). Champoux(1978)는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경험과 가정생활을 분리할 수가 없으며 개인의 직장생활의 질이 가정생활에 질적으로 전이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직장과 가정 간의 전이는 감정이나 가치, 태도, 기술 및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전이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을 수 있다. 직장-가정갈등은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로서 직장 또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발생할 때 서로 다른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대인관계의 질을 감소시키게 된다(Crouter, 1984; Geurts et al., 2003).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들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가정폭력 위탁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되었다. 아내를 구타한 남성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상담기관에 의뢰되면 이들 기관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기관의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행위자가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조사 인원은 전국 65개 가정폭력 상담기관에서 조사된 행위자 293명으로 이들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직장-가정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상자가 무직, 전업주부, 학생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직장-가정갈등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친다면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가설 1]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는 아내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아내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3.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직장-가정갈등

직장-가정갈등은 Carlson 등(2000)이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을 상호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WFC: Work Family Conflic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들에 앞서 Netmeyer 등(1996)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의 두 방향을 사정하는 척도를 소개하였고, Stephens과 Sommer(1996)가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위갈등의 세 차원의 척도를 구성한 바 있다. Carlson 등의 직장-가정갈등 척도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직장-가정갈등의 방향과 갈등유형을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서 '직장의 가정역할 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 방해'의 양방향과 함께 각 방향에서 '시간갈등', '긴장갈등', '행위갈등'을 측정하도록 총 6개의 하위차원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차원을 유지하면서 1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의 두 방향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과 가정 간의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가정갈등(WFC)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869이고,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는 .780,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는 .849이었다.

#### 2) 종속변수: 아내폭력

아내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Straus(1979)가 개발한 CTS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는 문항들만으로 재구성하여 경미한 폭력 4문항, 심각한 폭력 4문항의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폭력 빈도에 따라 '없음(0점)'에서 '1~2회(1점)', '3~5회(2점)', '6~9회(3점)', '10회

이상(4점)', '20회 이상(5점)'까지 응답하도록 한 6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912이었다.

#### 3) 매개변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Abell(1991)이 개발한 ICS(Index of Clinical Stre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별한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없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으로 수정하여 '정말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다',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였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좌절감을 느꼈다' 등이다. 점수는 모든 문항을 역산을 하여 합계를 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936이었다.

#### 4) 통제변수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로 연령, 직업, 소득, 학력 등이 보고된 바 있다(김재엽, 2007; Aldorando & Sugarman, 1996; Dibble & Straus, 1990).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 보았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내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분석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은 먼저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이며,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라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Aroian test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직업으로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가 131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 69명(25.4%), 30대 67명(2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가정폭력 행위자임을 감안할 때, 20, 30대 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37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상 70명(26.2%), 중졸이하 60명(2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월평균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84명(36.1%), 200만원~300만원 미만 59명(25.3%), 300만원~400만원 미만 33명(14.2%), 400만원 이상 30명(12.9%), 100만원 미만인 27명(11.6%)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들 중 가정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7.7%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생산직이 19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5명(13.2%), 무직이거나 기타로 응답한 사람이 37명(13.9%)으로 나타났다.

## 2. 아내폭력 실태

조사대상자에 의한 아내폭력 실태를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가 아내에게 행한 폭력은 '세계 밀쳤다'가 140명(57.2%)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세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들이 발생률이 높았으며, 약 50%는 이와 같은 형태의 아내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7%가 아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험이 있었고, 물건이나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도 13%로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n=293

특 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 령	20대	5	1.8
	30대	67	24.6
	40대	131	48.2
	50대 이상	69	25.4
교육수준	중졸 이하	60	22.5
	고졸 이하	137	51.3
	전문대졸 이상	70	26.2
가족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7	11.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4	36.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9	25.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	14.2
	400만원 이상	30	12.9
직 업	생산직	194	72.9
	사무직	35	13.2
	기타	37	13.9

&lt;표 2&gt; 아내폭력 실태

n=244

	아내폭력 유형	명 (%)
경미한 신체폭력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117 (47.7)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94 (37.8)
	세계 밀쳤다	140 (57.2)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126 (51.6)
심각한 신체폭력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92 (37.4)
	물건(혁명, 방망이 등)으로 때렸다.	29 (10.8)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48 (17.3)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37 (13)

<표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n=227

	연 령	학 령	월소득	직 업	WIF	FIW	스트레스	아내폭력
연 령	-							
학 령	-.330***	-						
월소득	-.021	.361***	-					
직 업	-.014	.350***	.342***	-				
WIF	-.187**	.027	-.030	.032	-			
FIW	-.267***	-.038	-.020	.022	.590***	-		
스트레스	-.041	-.177**	-.091	-.117	.402***	.536***	-	
아내폭력	-.095	.125	-.065	-.046	.248***	.289***	.339***	-

\*\* p<.01 \*\*\* p<.001

나타나 아내에 대한 폭력 유형이 매우 심각한 형태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직장-가정갈등 실태

조사대상자의 직장-가정갈등 실태는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일로 인해 그러지 못한다'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을 합하여 51.5%로 가장 많았으며, '퇴근 후 너무 지쳐 가족 활동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1.8%, '직장에서 사용하는 문제해결방식이 가정에서의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가 40.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생활에 몰두하는 시간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지장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감이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비슷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도 종종 집안일에 정신이 팔려있다'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을 합하여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에서의 책임감 때문에 회사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대다수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책임감이 직장 일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때문에 직장 내 활동을 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와 '집에서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식이 직장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가 각각 24.5%와 20.8%로 나타나 시간적인 방해나 역할 수행에서의 장애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 4.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 및 관련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소득, 직장, 독립변수인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 매개변수인 스트레스, 종속변수인 아내폭력이 포함되었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거나, 상관관계가 있어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WIF와 FIW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WIF와 FIW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스트레스 간에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이후 회귀분석에서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VIF계수와 tolerance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VIF 계수는 모두 3이하이고, tolerance는 모두 .3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5.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step 1,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step 2,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step 3의 회귀분석 과정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직장-가정갈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직업분류에서 무직과 전업주부, 기타를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직업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step 1의 회귀모델에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는

&lt;표 4&gt; step 1 :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n=187

구 분	step 1			
	B(S.E.)	$\beta$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07(.006)	-.080	1.122(.891)
	교육수준	-.092(.043)	-.183*	1.396(.716)
	소득수준	4.12E-005(.000)	.012	1.228(.814)
	직 업 <sup>1)</sup>	.007(.128)	.005	1.253(.798)
독립변수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	.158(.055)	.208**	1.026(.975)
R <sup>2</sup>		.077		
Adj. R <sup>2</sup>		.051		
F(sig)		3.013*		

\*p&lt;.05, \*\*p&lt;.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lt;표 5&gt; step 2 :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202

구 분	step 2			
	B(S.E.)	$\beta$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03(.007)	.027	1.158(.864)
	교육수준	-.084(.047)	-.135	1.410(.790)
	소득수준	3.59E-005(.000)	.008	1.228(.814)
	직 업 <sup>1)</sup>	-.236(.140)	-.119	1.229(.814)
독립변수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	.363(.059)	.396***	1.027(.974)
R <sup>2</sup>		.196		
Adj. R <sup>2</sup>		.176		
F(sig)		9.572***		

\*\*\*p&lt;.0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 때 회귀계수는  $\beta=.208$ 로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전체설명력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1%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내폭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다음으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step 2의 회귀모델은 <표 5>와 같이 전체설명력은 17.6%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의 회귀계수는  $\beta=.396$ 으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마지막으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투입하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step 3의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11.2%로  $p<.001$  수준

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만 포함된 회귀모델(step 1)에 비하여 설명력이 6.1% 증가하였다. <표 5>의 step 1에서는 독립변수인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tep 3에서 매개변수인 스트레스가 회귀모델에 포함되면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영향력( $p<.001$ )을 보였다. 이 때 스트레스의 회귀계수는  $\beta=.280$ 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령, 교육, 소득, 직업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6.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와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



<표 6> step 3 :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와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n=187

구 분	step 3			
	B(S.E.)	β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08(.006)	-.093	1.125(.889)
	교육수준	-.071(.042)	-.141	1.423(.703)
	소득수준	3.99E-005(.000)	.011	1.228(.814)
	직 업 <sup>1)</sup>	.058(.125)	.036	1.269(.788)
독립변수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	.081(.057)	.106	1.187(.842)
매개변수	스트레스	.225(.061)	.280***	1.219(.821)
R <sup>2</sup>		.141		
Adj. R <sup>2</sup>		.112		
R <sup>2</sup> Change (step 1 기준)		.061		
F(sig)		4.926***		

\*\*\*p<.0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표 7> step 1 :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n=185

구 분	step 1			
	B(S.E.)	β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03(.006)	-.034	1.167(.857)
	교육수준	-.092(.042)	-.184*	1.395(.717)
	소득수준	4.05E-005(.000)	.011	1.225(.816)
	직 업 <sup>1)</sup>	.004(.126)	.003	1.248(.801)
독립변수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	.211(.053)	.290***	1.065(.939)
R <sup>2</sup>		.113		
Adj. R <sup>2</sup>		.089		
F(sig)		4.582**		

\*p<.05, \*\*p<.01, \*\*\*p<.0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step 1),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다음(step 2), 마지막으로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회귀분석(step 3)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직장-가정 갈등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직업분류 중 무직과 전업주부, 기타를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직업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가정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step 1의 회귀모델의 전체설명력은 8.3%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회귀계수는 β=.290으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통제변수 중에서

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내폭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으로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step 2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모델의 전체설명력은 27.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회귀계수는 β=.519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와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었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모델의 설명력은 12.3%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독립변수만 포함된 모델(step 1)의 8.9%에 비하여 3.4%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7>의 step 1과 비교하였을 때 step3에서는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β 값이 .290에서 .174로 변

<표 8> step 2 :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199

구 분	step 2			
	B(S.E.)	β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11(.007)	.107	1.213(.824)
	교육수준	-.079(.044)	-.128	1.418(.705)
	소득수준	1.87E-005(.000)	.004	1.225(.816)
	직 업 <sup>1)</sup>	-.248(.134)	-.124	1.233(.811)
독립변수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	.464(.056)	.519***	1.078(.928)
R <sup>2</sup>		.295		
Adj. R <sup>2</sup>		.277		
F(sig)		16.153***		

\*\*\*p<.0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표 9> step 3 :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와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n=185

구 분	step 3			
	B(S.E.)	β	VIF(tolerance)	
통제변수	연 령	-.005(.006)	-.062	1.188(.842)
	교육수준	-.075(.041)	-.148	1.428(.700)
	소득수준	3.70E-005(.000)	.010	1.225(.816)
	직 업 <sup>1)</sup>	.046(.124)	.029	1.226(.790)
독립변수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	.127(.060)	.174*	1.415(.707)
매개변수	스트레스	.186(.066)	.232**	1.400(.714)
R <sup>2</sup>		.152		
Adj. R <sup>2</sup>		.123		
R <sup>2</sup> Change (step 1 기준)		.034		
F(sig)		5.309***		

\*p<.05, \*\*p<.01, \*\*\*p<.001

주 : 1) 생산직=0, 사무직=1

화하여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아내폭력 예측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아내폭력에 대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β 값이 .232로 p<.01의 수준에서 유의하여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와 스트레스가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령, 교육, 소득,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다.

7.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직장-가정갈등의 두 방향인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가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계수): (WIF 또는 FIW) → 스트레스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b(비표준화계수): 스트레스(WIF 또는 FIW가 통제된 상태에서) → 아내폭력

SE<sub>b</sub> : b의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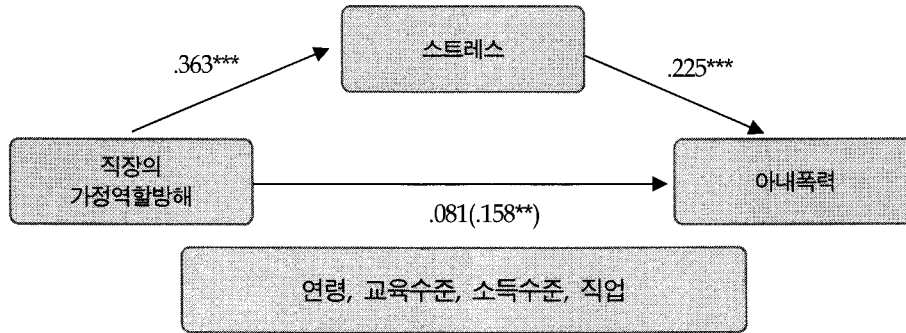
Aroian 검증 결과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각각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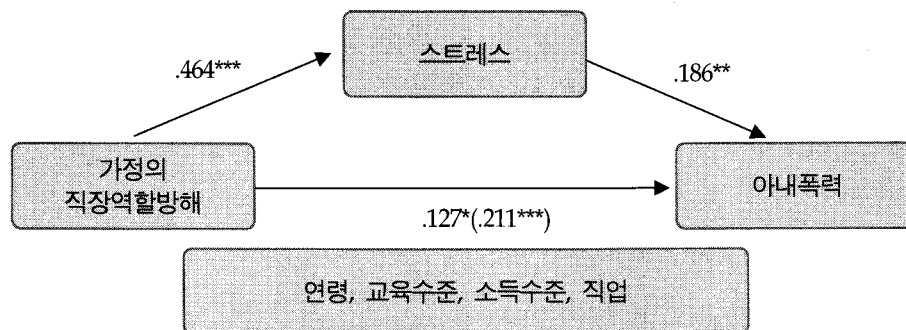
<표 10> 직장-가정갈등과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p-value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 → 스트레스 → 아내폭력	3.133	.002**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 → 스트레스 → 아내폭력	2.651	.008**

\*\*p<.01



<그림 1> 직장의 가정역할방해(WIF)와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가정의 직장역할방해(FIW)와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레스가 포함되기 전에 b값은 .158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스트레스가 포함된 후 b값은 .081로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장의 가정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트레스가 포함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b값이 .211(p<.001)에서 .127(p<.0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아내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 V. 논의 및 제언

직장-가정갈등과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였고,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아내폭력 행위는 세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려는 위협행동, 물건을 부수는 행동들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약 17%가 아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험이 있었고,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정없이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다치게 하는 행위는 아내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이나 다툼의 일종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아내폭력 행위자의 치료적 개입 뿐 아니라 예방 역시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현행의 가정폭력특별법에는 행위자처벌과 피해자보호는 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홍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전부로 가정폭력 정책이나 제도가 예방보다 사후처방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이 전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정폭력 발생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직장-가정갈등의 정도를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두 방향에서 살펴본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직장일에 투입되는 시간이 가정생활과 갈등을 빚는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1.5%)이 직장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정생활에 투입되는 시간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은 약 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족생활보다는 직장생활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생활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시간으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있어 직장환경의 변화 필요성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의 균형과 직장-가정간의 역할조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에서 과도한 업무 시간 다음으로 직장생활에서의 긴장감과 스트레스(41.8%), 문제해결방식(40.8)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정생활과 상충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일을 가정보다 우선하기를 기대하는 직장문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남편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에서는 가정생활에서 겪는 긴장감과 스트레스(48.9%)가 직장생활에 뚜렷한 장애가 되지만 시간적인 할애(24.5%)나 역할 수행(20.8%)은 그다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시간이나 역할이 직장생활을 방해할 만큼 부담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여 직장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직장-가정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에 초점을 둔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정갈등에서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와

가정의 직장역할방해의 두 방향 모두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내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의 가정역할방해 및 가정의 직장역할방해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직장의 가정역할방해는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장생활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갈등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아내폭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직장일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직무와 관련된 긴장감, 그리고 역할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만 그 자체로 아내폭력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장-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아내폭력에 이르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아내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에 스트레스 관리나 분노 조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치료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아내폭력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로 인해 직장생활과 갈등을 빚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아내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정과 직장의 갈등 그 자체가 아내폭력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직장이 상호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내폭력과 관련하여 가정과 직장, 개인의 모든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직장의 가정역할방해의 경우와는 달리 가정의 직장역할방해는 갈등의 시작이 가정에 있으며 그 결과도 가정에서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족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가족에 초점을 맞춘 개입으로서 부부갈등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부부갈등이 직장생활과 아내폭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순환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조사대상자가 아내폭력을 행사한 행위자들로 국한되어서 연구결과를 모든 남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폭력 행동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해행동을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가정갈등과 스트레스 및 아내폭력 행동을 단면적으로 조사하여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장-가정갈등과 아내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상호효과 연구, 비교집단과의 연구 및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아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정갈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쳐 폭력에 이르게 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가정 내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불화나 가족의 갈등이 직장에서 일에 몰두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때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아내폭력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나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내폭력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담기관의 양적인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전국적으로 372개(2006년 말 기준)가 있으나 폭력상담소라는 이름이 낙인을 줄 수 있어 일반 가정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관은 상담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드문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200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이나 가족치료에 이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에 약 60개소에 불과해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상담소의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여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상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의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하고, 특히 가족문제나 아내폭력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혼가정, 실직가정, 장애인 가정, 국제결혼가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장인 남성들을 위한 직장에서 이용 가능한 개입 서비스 마련 및 직장문화의 변화 등 직장차원의 개입과 변화가 필요하다. 직장인 남성들이 직장과 가정간 갈등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을 찾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고, 더구나 남성들은 타인에게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내폭력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직장인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관련 상담 뿐 아니라 가정상담 및 스트레스와 알콜 문제 상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정신건강과 가정생활에 긍정

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는 일부 대기업이나 희망 업체 직장인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장 차원의 상담서비스는 직장과 지역사회의 상담기관이 연계하거나 전문상담원과의 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장인들이 정기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육과 가사 등 가정 내 역할 분담의 문제는 직장과 가정간 갈등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잡힌 양립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가족의 특성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아내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직장-가정갈등을 사정하고 직장과 가정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행 행위자 프로그램에서는 폭력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가족, 가부장적 사고, 성역할 태도 등을 다루고 있고, 폭력행동을 중단하도록 폭력의 책임성, 비폭력적 행동 기술을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남성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을 도입단계에서 사정하여 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부부갈등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장-가정갈등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직장과 가정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내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다학제간 공동 연구와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내폭력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여성학, 사법체계, 의료, 심리상담, 가족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이 산업 및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아내폭력은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내폭력 관련 연구들은 다른 학문영역과의 공동 연구가 미흡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된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학문 영역별로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학제간 공동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권복순(1999).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39.

- 김재엽(1999).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재엽(2007).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 김재엽 · 최수찬(2005). 스트레스 및 성역할태도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아내구타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5(2), 187-222.
- 김지영 · 최상진(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8(3), 77-95.
- 김홍규 · 가영희(2005). 성인의 직장-가정에서의 갈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85-98.
- 여성가족부(2005).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최수찬 · 백지애(2006). 비동거가족 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4), 157-182.
- Abell, N.(1991). The Index fo Clinical Stress: A brief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7, 12-15.
- Aldorando, E. & Sugarman, D. B.(1996). Risk marker analysis of the cessation and persistence of wife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5), 1010-1019.
-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y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278-308.
- Baron, R. M. and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no, A. and Vivian, D.(2001). Life stress and husband-to-wife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5), 459-480.
- Carlson, D. S., Kacmar, M. K., & Williams, L. J.(200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6(2), 249-276.
- Champoux, J. E.(1978). Perceptions of work and nonwork: A reexamination of the compensatory and spillover model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5, 402-422.
- Crouter, A. C.(1984). Spillover from family to work: The neglected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Human Relations*, 37(6), 425-442.
- Dibble, U. G. & Straus, M. A.(199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t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Straus & Gelles, Transaction.
- Farrington, K.(1980). Stress and family violence. In Straus, M. A., and Hotaling, G. T. (eds.),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94-114.
- Farrington, K.(1986). The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the study of family violence: Principle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 131-147.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n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Gelles, R. J. & Cornell, C.(1983). Introduc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Family Violence, in Richard Gelles & Claire Cornell, eds., *Introduc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Family Violence*. Lexington Mass:Lexington Book, D.C. Health and Company.
- Gerber, G.(1991). Gender, Stereotypes and Power: Perceptions of the Roles in Violent Marriage, *Sex Roles*, 24(78), 439-458.
- Geurts, S. A. E., Kompier, M. A. J., Roxburgh, S., & Houtman, I. L. D.(2003). Does work-home interfere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load and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63, 532-559.
- Grandey, A. A., & Cropanzano, R.(1999).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model applied to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4, 350-370.
- Grant-Vallone, E. J. & Donaldson, S. I.(2001).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well-being among non-professional employees. *Work & Stress*, 15 (3), 214-226.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Sou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Greenhaus, J. H. & Beutell, N. 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utek, B. A., Searle, S., & Klepa, L.(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560-568.
- Hobfoll, S. E.(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sing stress. *American Psycholo-*

- gist*, 44(3), 513-524.
- Kahn, R. L., Wolfe, D., Quinn, R., Snoek, J., & Rosenthal, R.(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atz, D., & Kahn, R. L.(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Kelloway, E. K., Gottlieb, B. H., & Barham, L.(1999). The source, nature, and direction of work and family conflic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4, 337-346.
- Kinnunen, U., Geurts, S., & Mauno, S.(2004). Work-to-family conflict and its relationship with satisfaction and well-being: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on gender differences. *Work & Stress*, 18(1), 1-22.
- Kossek, E. E., & Ozeki, C.(1998). Work-family conflict, polici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organizational behaviour-human resources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139-149.
-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400-410.
- Presser, H. B.(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3-110.
- Schechter, S.(1982). *Women and Male Violence*. Boston: South End Press.
- Staines, G. L.(1980). Spillover versus compens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non-work. *Human Relations*, 33, 111-129.
- Stephens, G. K., & Sommer, S. M.(1996). The measurement of work to family conflic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3), 475-486.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In Wright, F., Bahn, C., and Reiber, R. W., (eds.), *Forensic psychology and psychiatry*. Ann. N. Y. Acad. Sci. 347: 229-250.
- Straus, M. A., &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U.S.A.) and London(U.K.).
- Strazdin, L., Clements, M. S., Korda, R. R., Broom, D., H., & D'Souza, R. M.(2006). Unsociable Work? Non-standard work schedules,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2): 394-410.
- Suitor, Pillemer, & Straus(1990). "Marital Violence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Straus & Gelles, Transaction.
- Umberson, D. J., Williams, K. L., & Anderson, K. L.,(2002). Violent behavior: Measure of emotional upse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89-206.

접수일 : 2007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17일